

경제 회복국면 진입?

장기 침체국면을 이어가던 국내 경제가 기지개를 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회복세가 확산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들이 남아 있고 주식 등 자산시장의 과열 조정과 맞물려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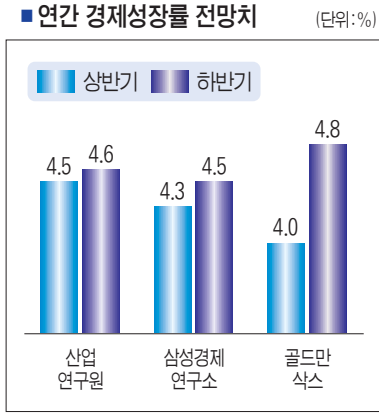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초기상태에 불과하며 자산가격의 붕괴가 우려되는 금리인상 등 정책수단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반기 호전 전망 잇따라=국회에 산정정책을 올 하반기 성장률을 상반기(4.2% 추정치)보다 0.5%포인트 높

은 4.7%로 내다봤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4.5%로 올렸다. 산업연구원(KIET)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6%로 올렸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와 골드만삭스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5%로, 4.0%에서 4.8%로 각각 올렸다.

이들 기관의 상황조정 근거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 유지다.

5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6.6% 증가, 4월(6.7%)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했고 서비스업생산도 작년 동월 대비 5.6% 늘어 4월의 5.1%에서 증가



세가 확대되는 등 실물지표도 호조세다. 정부도 여러 지표를 보고 고려할 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민간 소비 회복 등에 성장을 잇단 상향 조정 대선·고유가·환율·증시과열 등 복병도 산재

◇유가·유동성·선거 등 복병도 산재=하반기 경제의 회복세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고유가·환율·증시과열에 따른 신용거래 급증, 부동산·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등 복병도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68달러선까지 와 있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923원 선으로 다시 내려갔으며 원·엔 환율도 100엔당 750원선이 무너졌다. 코스피지수가 급등하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올 들어 5조원이 늘었다. 정부는 과열에 대해 경고로 진정을 유도하지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계속 쏠리고 있다.

미국의 경기위축이나 중국의 긴축 조치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타격 가능

성이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도 국내 업계의 부담이다.

◇전문가 "금리인상 소비위축 우려-신중해야"=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미미하고 유동성 과잉현상이 올 하반기 선거와 맞물려 과열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경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리인상을 서두르면 소비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280조원 정도여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소비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고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연합뉴스

“주택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필요” 금융연, 가계 부실 촉발 가능성 커

시장 금리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 변동금리 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폭 제한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은 시장 금리가 급등할 때 신용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금리 상승 추세로 시장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한국 경기는 후퇴해 가계 소득이 정체될 경우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주택대출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 금리 인상 폭의 한도를 묶어 한다는 것이다.

최초 금리 산정 이후 금리 재조정 때마다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총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 폭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연합뉴스

정부, 대부업 이용 서민피해 줄이기 대책

“은행들 소액대출 나서라”

정부가 대부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의 소비자금융시장(소액신용대출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비중을 50%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금융소비정책에 대한 은행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다음달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은행이 소비자금융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진출 방안으로 지방은행은 직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시중은행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를 자회사로 설립해 소비자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는 카드위기 이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들이 시중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 등으로 여러 단계가 있었지만 2002년 이후 카드위기 불거지면서 이런 대출 체계가 무너져 중간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소비자까지 대부업체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의 경우 높은 금리의 대출을 취급해도 평판이 나빠질 위험이 높지 않아 직접 진출방식이 제시됐으며 시중은행은 평판위험 때문에 자회사 방식으로 취급하며 수익의 일정비율을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8월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합 소비자

금융업을 허용해 현재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신한캐피탈)과 하나은행(하나캐피탈)이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주력해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낮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여전사의 대출업무 비중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중등대출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액신용대출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여전사의 대출업무 50% 제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기준은 금감위가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면서 모(母) 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와 제2금융권의 영업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만든 것으로 2004년 시행령 개정시 반영됐다. /연합뉴스



삼성 지펠, 빙수도 만드네
삼성전자가 별도의 장치없이 냉장고 자체에서 얼린 얼음을 빙수로 만들 수 있는 빙수 디스펜서형 지펠냉장고를 1일 출시했다. 이 제품(694~756 리)의 판매가격은 314만~374만원이다. <삼성광주전자 제공>

쇼핑호스트·헤드헌터 새 직업 추가

쇼핑호스트, 프로게이머, 헤드헌터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종 직업이 표준직업분류 항목에 새로 추가된다.

통계청은 1일 20년 만에 개정된 국제직업분류(ISCO-08)를 반영하고 국내 노동시장 추세와 직업별 고용률 수 변화 등을 고려해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내용을 개정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분류에서 '전문가'와 '준전문가(기술공)' 항목을 통합하고, 중분류에서는 '일반 사무'와 '고객서비스 사무'로만 분류되던 사무 종사자 종류를 직능유형별로 경영, 금융, 법률, 상담, 안내, 통계 등으로 세분한다. 판매직은 매장 유무에 따라 매장판매직과 방문·노점·통신 판매직으로 구분하고, 의무복무 중인 장교는 군인에서 제외한다. /연합뉴스

아울러 ▲의자·보조기 기사 ▲헤드헌터 ▲청소년지도사 ▲학습지 강사 ▲품질인증 심사 전문가 ▲해의 영업원 ▲튜레이터 ▲쇼핑호스트 ▲디스플레이 ▲할자디자이너 ▲프로게이머 ▲신용추심원 ▲무인경비원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고속철도 기관사 등은 세부류 직업 항목에 새로 포함된다. /연합뉴스

똑똑한 소비·감성 소비..

新소비코드 5가지 아시나요

LG경제연구원은 1일 '새로운 소비코드 5가지'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시장에서 똑똑한 소비, 감성 소비, 주제적이고 능동적인 소비, 간편하고 쉬운 소비, 자기표현 욕구에 따른 소비 등의 경향이 반영된 5가지 신소비코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연구원이 꼽은 최근의 5가지 소비코드다. ▲트레저 헌터(Treasure Hunter)=가격대비 최고의 가치를 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다.

▲아티젠(Art Generation)=상품에 예술이 결합된 아트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다. 세련되고 예쁜 디자인의 수준을 넘어 디자인이 혹은 예술가가 주는 고유의 디자인과 퍼스널리티를 중시한다.

▲크리슈머(Cresumer)=창조적 소비자라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히 고객 모니터링이나 단발성 이벤트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제품 개발, 디자인,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몰링(Malling)=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은 물론 오락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긴다. 쉽게 말해 쇼핑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향이다.

▲마이크로 미디어(Micro-media) 소비=최근 소비자들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정보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보생산자와 주체로 거듭났다. /연합뉴스

“칼로리·설탕·카페인 NO”

‘킨 사이다 제로’ 출시

한국코카콜라는 최근 국내 최초로 칼로리와 설탕, 카페인 등이 없는 '킨 사이다 제로'를 출시했다.

'킨 사이다 제로'는 기존 사이다의 상쾌한 맛은 유지하면서도 '0칼로리'의 특징을 지닌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용기 색상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꿨다.

한국코카콜라는 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시음행사와 옥외광고, 차량광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편의점, 할인매장, 슈퍼 등에서 250ml 캔, 500ml 페트, 1.5L 페트로 판매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평·돈 쓰면 과태료... m·g 쓰자니 헛갈려!

비법정단위 금지 시행 첫날

7월부터 '평'이나 '돈' 등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단속 대상인 '평'과 '돈' 등 2가지 단위를 한정함에 따라 건설업계와 금융업자들이 각각 'm(제곱미터)'와 'g(그램)' 사용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 카탈로그 등의 면적 표기에 'm'만 써야 한다. 또 금융업의 경우 'g'이 아닌 기존 '돈'이나 '돈종'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와 금융업 등은 'm'과 'g'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금은방·건설업계 딜레마

‘근·인치’ 등은 단속 제외

업계·소비자 곳곳서 혼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묘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기존 '평' 대신 '형'이나 'PY', '타입(type)' 등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실제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평'과 'm'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형', 'PY', '타입' 등을 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나 자본금 30억 이상 업체는 모두 단속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불만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가뜰

이나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단위를 사용한다는 데 따른 부담이 큰 것이다.

금융업 등 귀금속 관련 업계도 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돈이 3.75g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손님이 많은 데다 자칫 'g'으로 설명할 경우 고객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행 첫날인 1일 광주·전남지역의 일부 금은방에선 '돈'과 'g'을 놓고 업무와 손님들간 입씨름이 벌어지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평'과 '돈'은 물론, '근', '야드' 등 모든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홍보·계도가 미흡했다는 여론에 따라 단속 단위를 '평'과 '돈' 2가지로 축소하는 한편 단속 대상도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귀금속 취급 업체로 한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원·엔 최저...對日수출 감소세

5월까지 105억弗 그쳐... 수입은 3년만에 두자릿수 증가

원·엔 환율이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대일(對日)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상품의 수입은 크게 늘면서 수입 증가율이 3년 만에 두자릿수로 올라갔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대일 수출은 105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 감소했다. 올해 1·4분기 대일 수출증가율이 -1.7%를 기록하고 4월 한 달간 9.0%의 반짝 증가세를 보였으나 5월에는 다시 5.8% 감소를 나타냈다.

비록 1~5월 수출실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출 감소세가 연말까지 지속한다면 2002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일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연도별 대일 수출증가율은 2001년과 2002년 각각 -19.4%, -8.3%를 기록했으나 2003년 14.1%의 증가세로 반전한 후 2004년 25.6%, 2005년 10.7%, 2006년 10.4% 등을 나타냈다.

한편 1~5월 대일 수입액은 231억8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5% 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2004년 27.1%를 나타낸 후 2005년 4.9%, 2006년 7.3% 등으로 2년 연속 한자릿수를 머물렀으나 올해는 다시 두자릿수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원·엔 환율이 100엔당 750원선까지 무너지는 등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3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1 15 24 39 41 44	7	
등 위		
1	6개 숫자 일치	1,134,140,16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8,662,423
3	5개 숫자 일치	1,570,832
4	4개 숫자 일치	60,921
5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62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7조 596520
2	5억	7조 596521
		7조 596519
3	1천만	
4	1백만	각조 53194
5	1만	각조 644
6	2천	각조 13
		각조 60
7	1천	각조 0
		각조 1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에스프	PC.POS A/S 유지보수(새점포 상주)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08	02-3143-5590
동우산업(주)	(목포) 삼호중공업 내 공무부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651-8555
(주)대용정공	생산직(프레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19-638-0333
(주)국민신문사	[전남]담양영리회 회계	초대졸/경력무	1000~1200	07/10	061-381-1580
동우산업(주)	(목포) 삼호중공업 내 공무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651-8555
(주)호원	연구 개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2-944-8311
국제컴퓨터학원	oa, 컴활, 워드, 전산회계, cad 강의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7/13	062-266-6617
동하코퍼레이션(주)	광주(전라)생산직 - 반도체부품 검사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7/14	032-325-4726
광고뱅크	매인도시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7/14	062-381-2411
(주)나오미식품	식품공정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1-332-2166
글로벌광통신(주)	광기술연구소 - 광관련 연구개발, 기술개발	대원졸/경력무관	2200~2400	07/15	062-973-6114
(주)로만손	이마트 봉선점 로만손 시계코너 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2-2190-7125
해금건설(주)	현장 관리 및 공무	고졸/경력1년	2200~2400	07/16	062-654-3131
스타일웨이	복합선물 온라인사업부 총괄팀장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7/16	062-717-5018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